“학생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2024 경희 Fellow 우수 교육 – ① 생체의공학과 변경민 교수

경희는 교육 ·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교원을 ‘경희 Fellow’로 선정한다. 우리신문은 2024 Fellow 교수 중 학생과 밀접한 ‘교육’ 우수 부문 교원 3명 중 2명(변경민, 주부석 교수)을 만나본다. 첫 번째 순서로 변경민(생체의공학) 교수를 만나기 위해 전자정보대학관을 찾았다.

전정대 건물 내 한 강의실. 수업이 끝났음에도 강의실이 시끌벅적하다. 칠판에 빼곡하게 적힌 판서 앞에 학생들이 일렬로 서서 교수와 대화를 나눈다. 교수는 질문에 하나하나씩 정성껏 답변한다. 변 교수가 맡은 전정대 전공과목 ‘응용전자회로’ 수업에서 매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변 교수는 ▲BK21사업 융합학과 신규 교육과정 개발 ▲의공학 교과서 집필 등의 성과가 인정돼 2024 경희 Fellow에 선정됐다.

특히 변 교수는 지난해 여름, 의공학 전공 서적 ‘의공학개론’ 집필에 참여해 바이오광학 분야 집필을 맡았다. 이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의공학 교과서다. 이전까진 생체의공학 전공 서적 중 한글로 된 책이 없었다. 학생들은 외국 서적 중 일부를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변 교수는 “우리말로 된 서적을 통해 전공 과정 학습을 어려워할 학부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서적은 이번 달 출간됐다.

변 교수는 단순히 한글화에만 힘쓰기보단,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학부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뿐 아니라 생체의공학 기술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예시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변 교수의 철학은 수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론보단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갖가지 예시가 중심이다. 그 예시는 학생에서 나온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생체의공학 분야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받는데, 이는 다음 수업의 재료가 된다. 변 교수는 “학생이 제안한 내용 중 인공 눈물 캡슐의 미세 플라스틱 등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이 나온다”며 “미래 연구 방향에도 귀감이 된다”고 말한다.

수업 때 PPT나 영상 자료보다 판서를 고집하는 것도 변 교수의 특징이다. 자칫 옛날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학생 반응은 좋다. 집중도도 높아지고 교수와 학생 간 교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강생 이진수(생체의공학 2021) 씨는 “판서 수업을 통해 내가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 되고, 수업 집중도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나은 강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방향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변 교수는 최우수 교원으로 선정된 데에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생체의공학을 가르치는 변 교수는 학부 시절 전기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더욱 관심 있는 분야로의 도전을 위해 생체의공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고도난청 환자의 청력을 회복시키는 벤처 회사에서는 납땜 작업을 하며 현장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처럼 변 교수는 학생들에게도 끝없는 도전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20대는 무엇이든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보내야 하는 소중한 시기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민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학생회관 4층 천장 일부 내려앉음 대학, 지지대 부재 원인으로 파악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 지난 26일 학생회관 4층 일부 천장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을 고정하는 전산 볼트 부재가 원인이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405호와 407호로, 천장이 주변과 비교해 눈에 띄게 내려앉아 있었다. 문제 발생 후 현장을 점검한 관리팀은 천장과 마감재를 고정하는 전산 볼트 등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학생회관 천장은 콘크리트 아래에 천장 데크를 마감재로 덧댄 구조다. 콘크리트와 데크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공간을 지지할 구조물이 없어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됐고, 데크가 가라앉은 것이다.

관리팀 김태우 과장은 “예전에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전산 볼트를 끊어버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리팀은 철사를 이용해 천장을 임시로 고정한 상태다. 관리팀 한덕영 팀장은 “일단 철사로 고정해 놓았지만, 추후 점검으로 지지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중앙동아리는 동아리방 출입 자제 통보를 내렸다. 405호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MDOP’ 이규현(무역학 2024) 회장은 “사흘 전부터 천장 이상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 26일 천장이 많이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학교와 총동아리연합회 측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서예 중앙동아리 ‘서도회’는 학생회관 출입 자제 및 정기모임 취소를 공지하기도 했다.

서도회 최민준(철학 2022) 회장은 “정기모임 취소와 건물 출입금지 조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결정”이라며 “빠르면 오는 1일경,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FP World Food Programme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OFFICE OF CAREER DEVELOPMENT KYUNG HEE UNIVERSITY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인명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기관으로, 긴급 상황에서 식량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영양을 개선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PR 및 마케팅 인턴 모집 공고

모집내용
- 직책 : Intern - PR and Marketing
- 소속부서 : CAM, WFP Korea Office
- 근무지 : Seoul, Republic of Korea
- 활동기간 : 3월 말 근무 시작 (최소 6개월 근무)

주요업무
※ 커뮤니케이션 담당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텍스트, 사진, 영상, 오디오 등 콘텐츠 제작 지원
- Adobe 디자인 툴(Indesign, Photoshop, Premiere 등) 활용
- WFP 온라인 채널(Facebook, 네이버 블로그, Instagram 등) 관리 지원
- 콘텐츠 한영/영한 번역 지원
-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사진 촬영 및 정리 지원
- 뉴스레터, 잡지 기사, 기타 작성 자료 초안 작성 지원
- WFP 관련 온라인·오프라인 뉴스 기사 검색 및 정리
- 인플루언서 및 자원봉사자와의 소셜 참여 활동 기획 및 실행
- 기타 요청된 업무 지원

지원방법
- 모집기간 : 2.27 (목) ~ 3.13 (목) 15:00 까지
- wfp.korea@wfp.org 에 영문CV, Cover letter 제출
- 추후 면접 일정은 지원서 마감 이후 안내 예정

지원자격
- 우대사항 : 취창업스쿨(국제기구,NGO분야) 기 수강자 또는 수강 예정자
- 경희대 재학생 및 휴학생
- 18세 이상, 아래 전공을 공부했거나 공부 중인 자
  정치학, 국제관계학, 국제개발·협력, 개발경제학, 공공행정, 홍보,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타 관련 분야 (ODA 관련 전공 우대)
- 한국어 및 영어 작문 능력 우수자
- UN 공용어 중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 소셜 미디어 관리 경험 보유자
- MS Office 활용 가능자
- UN관련 기관 인턴 경험 또는 모금 경험자 우대
- 오프라인 캠페인 및 행사 기획 경험자 우대
- 사진 촬영, 그래픽 디자인, 영상 편집 중 하나 이상의 기술 보유자 우대